

# 바른미래연구원 이슈 페이퍼

Vol.44 2020년 3월 24일  
www.brmrins.or.kr

## 우리나라 정치에서 중도실용 정당의 존재

김효태 연구위원  
cyberteamzang@gmail.com

\*이 글은 필자의 개인 의견이며, 바른미래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음

### “우리나라에서 진정한 실용주의 정당은 없다.”

#### 1. 실용주의, 이론과 현실

##### (1) 이론가들의 실용주의 해석

실용주의란, 넓은 의미로는 유용성·효율성·실제성을 가리키며 학문적 의미로는 추상적·궁극적 원리의 권위에 반대하는 태도<sup>1)</sup>를 가리킨다.

실용주의의 일반적 특징은 선천적 이유, 고정된 원리, 폐쇄된 체계, 모든 절대자를 배척한다는 점이다. 존 맥아더(John MacArthur, 목사/미국 매스터대학 총장)가 설파한 실용주의도 이와 비슷하다. 존 맥아더는 '실용주의는 절대적인 선과 악, 정과 사, 진리와 거짓의 개념을 부정한다.'라면서 '궁극적으로 실용주의는 진리를 쓸모있는 것, 의미 있는 것, 도움이 되는 것으로 규정한다. 실현할 수 없거나 관련이 없어 보이는 개념들은 거짓으로 배척한다.'라며, '실용주의(pragmatism)란 의미가 가치와 실용적인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는 주의다.'라고 설명했다.

철학자이자 하버드대학 교수였던 윌리엄 제임스(William James, 1842~1910)는, '실용주의에서는 어떤 사물이 얼마만큼의 유용성을 갖느냐 또는 그것이 어떤 성과를 가져오느냐가 그 진리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보면서, '실제로 얻어진 결과로 가치가 인정되는 것만이 참이다.'라고 주장했다. 지극히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것에 가치를 둔 것이다.

1) 인용:다음백과사전

## (2) 실용주의를 위해서는 고정관념이 아닌 유연한 자세가 필요

실용주의에 있어 필수사항은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직된 자세로는 실용주의를 실천하기 어렵다. 실용주의는 그 대상에 있어 가용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원칙보다는 실용성을 중시하며,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

실용주의는, 추구하는 이념적 지향점이 없으므로 탈이념적이며 이념적 분류를 거부한다. 이러한 점 때문에 우리나라 현실 정치에서는 극단화된 대결과 이념 구도에서 양극단을 배제한 제3의 정치적 지대 혹은, 중도 등으로 ‘포지셔닝’하려는 정당과 세력에서 실용주의를 표방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일부는 자신이 처한 이념지형을 넘어서 중도로 확장하기 위해 실용주의를 표방하기도 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앞선 경우에는 '안철수 현 국민의당 대표'이고 후자의 경우는 이명박 정부였다.

## 2. 정치적 구호에 그치고 있는 한국 정치에서의 실용주의

### (1) MB정부의 실용주의 표방

MB정부는 집권 직후 실용주의를 표방했지만, 이념에서 벗어나서 실사구시(실용)의 모습을 보인 것은 아니었다. MB정부는 ‘중도실용’을 우 편향으로 해석하고 그에 맞는(우 편향적인) 정책만 쏟아냈다. 결국, MB정부의 실용주의는 보수우파 정부가 정권의 임기 초반에 ‘미국산 소고기 파동’으로 인한 지지율 하락과 민심이반을 극복하려고 중도층을 끌어안기 위해 내세운 정치적 수사에 불과했으며, 실용주의가 아니었다. 당연히 실패했다.

### (2) 안철수 대표의 중도실용주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중도실용주의는 반진보·반보수, 반이념, 반민주당·반미래통합당 등 어디에든 포함되지 않으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한 결기로서 표현이다. 20대 총선 당시는 더불어민주당에게, 21대 총선에서는 미래통합당에게, 통합이나 연대의 대상으로 지목되어 시달리고 있는 것에 대한 안철수 대표의 표현 방식이었고, 양당과 차별화하기 위한 방식으로 보인다. 투쟁하는 실용주의도 마찬가지로 개념의 표현으로 보인다.

중도실용주의 정당은 반대하는 정당이 아니라, 맞는 것(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정권이 옳은 길을 택하지 않으면 지적하고 반대해야 하지만, 정부·여당과 무조건 다른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극중주의라는 표현처럼 가운데만 하는 것도 아니다. 실용주의는 어느 한 가지 자세와 입장만 고수하는 경직된 행보로는 실행할 수 없다.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은 실용주의의 실제적 의미와는 거리가 있다.

### 3. 중도층이 아니라 스윙-보터. 스윙-보터는 실용주의 성향

#### (1) 중도라는 이념은 없다. 스윙-보터(부동층)가 존재할 뿐

이념을 말할 때, 2)중도는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지형에서 자유로운 선택을 하는 계층을 부를 때 사용하는 표현으로, 중도(중도층)는 '진보, 보수'처럼 이념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중도성향을 보이는 계층을 '중도층'이라고 하면서 진보, 보수에 이어 제3의 이념계층으로 구분하여 표현하는 경향이 크다.

중도라고 표현되는 계층은 그 성격상 '중도층'보다 '스윙-보터' 혹은 '부동층'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스윙-보터(부동층, 중도층)는 자신들의 관점에서 진보적 정책(세력)이 옳다고 생각할 때는 진보세력을 지지하고, 그 반대로 보수적 정책(세력)이 옳다고 생각할 때는 보수세력을 지지하는 것일 뿐이다.

최근처럼 기존 양당의 극단적 이념대립이 계속될 경우 피로감을 쉽게 느끼는 계층이다. 그러한 상황이 계속되는 상태에서 새로운 세력(정당)이 생겨난다면, 양 이념 정당을 대신할 대안으로 새로운 세력(정당)을 선택할 가능성이 큰 사람들이다. 사례로 들면 (20대 총선)국민의당, (19대 대선)안철수 후보, 1992년 당시 정주영의 통일국민당, 2007~2008년 당시 문국현의 창조한국당 등이 있다.

#### (2) 중도층(스윙-보터)은 스스로 실용주의라고 생각

바른미래연구원의 전신이었던 국민정책연구원 당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여론조사에서 스스로 중도층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중도의 의미를 실용주의라고 답한 경우가 가장 많다. 2018년 1월 데이터앤리서치 조사결과, 중도의 의미에 대한 응답에서 '실용주의'라고 답한 응답자가 48.4%였다. 또한, 한국 사회에서 중도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로 '실용적 민생정책 추구'라는 응답이 41.4%였으며 '사회통합'이라는 응답은 36.5%로 나타났다.

중도층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중간을 지향하는 계층이라고 되어있지만, 실제로 중도층은 중간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실용적인 판단에 따라 어느 것이든 선택할 수 있는 계층으로 보아야 한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중도층은 과거에 연연하지 않으면서 미래지향적이지도 않으며, 현재의 물질적 손익에 관련된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라고 하면서 '실용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기회주의적인 성향을 보이는 이들이 중도층'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2) 중도(中道) : 불교에서 유래한 용어. 치우치지 않는 바른 도리를 말함

#### 4. 실용주의 정당? 우리나라에는 없다.

##### (1) 현안에 따른 여론과 정당들의 입장

아래 여론조사 결과는(표1~표9) 바른미래연구원 의뢰로 진행된 온라인 조사로 2020년 1월 10~13일 동안 입소스 주식회사에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중 일부이다(95% 신뢰수준에서  $\pm 3.1\%$ )(패널을 활용한 온라인 조사. 1000명. 전국의 만 18세~64세 남녀 대상으로 지역별/성별/연령별 할당)

※ 표 1. 공수처 설치에 대한 응답

	동의(매우+동의)	비동의(비동의+전혀)	모름
전체 응답	60.7%	38.7%	5.6%
중도성향 계층 응답	61.2%	32.7%	6.1%
더불어민주당 입장	동의	자유한국당 입장	반대
바른미래당 입장	제한적 동의	정의당 입장	동의

※ 표 2. 검경수사권 조정 및 검찰개혁

	동의(매우+동의)	비동의(비동의+전혀)	모름
전체 응답	66.3%	28.8%	4.9%
중도성향 계층 응답	65.7%	28.7%	5.6%
더불어민주당 입장	동의	자유한국당 입장	반대
바른미래당 입장	제한적 동의	정의당 입장	동의

※ 표 3. 정부의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

	동의(매우+동의)	비동의(비동의+전혀)	모름
전체 응답	63.5%	31.7%	4.8%
중도성향 계층 응답	63.0%	31.1%	5.9%
더불어민주당 입장	동의	자유한국당 입장	소극적 비동의
바른미래당 입장	비판적 동의	정의당 입장	동의

※ 표 4. 복미대화 재개를 위한 우리정부의 노력

	동의(매우+동의)	비동의(비동의+전혀)	모름
전체 응답	51.0%	42.6%	6.4%
중도성향 계층 응답	46.5%	46.5%	6.9%
더불어민주당 입장	동의	자유한국당 입장	비동의
바른미래당 입장	비판적 동의	정의당 입장	동의

\*중도계층의 경우, 동의와 비동의 응답이 같음. 전체 응답은 동의가 과반이 넘지만, 비동의와 차이가 8.4%p로 크지 않음. 이는 국민 여론이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여론전에 따라 상황이 급방 달라질 가능성 큼. 중도성향 계층의 답변이 그것을 증명함

※ 표 5. 북한 김정은 방한 추진

	동의(매우+동의)	비동의(비동의+전혀)	모름
전체 응답	39.2%	52.6%	8.2%
중도성향 계층 응답	33.8%	56.9%	9.3%
더불어민주당 입장	동의	자유한국당 입장	비동의
바른미래당 입장	비판적 동의	정의당 입장	동의

※ 표 6. 도쿄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

	동의(매우+동의)	비동의(비동의+전혀)	모름
전체 응답	34.4%	57.2%	8.4%
중도성향 계층 응답	28.7%	63.6%	7.9%
더불어민주당 입장	동의	자유한국당 입장	비동의
바른미래당 입장	동의+비동의	정의당 입장	동의

※ 표 7. 미국·이란 충돌에 따른 국군의 호르무즈 파병

	동의(매우+동의)	비동의(비동의+전혀)	모름
전체 응답	20.5%	67.6%	11.9%
중도성향 계층 응답	18.4%	69.7%	12.6%
더불어민주당 입장	동의	자유한국당 입장	동의
바른미래당 입장	동의	정의당 입장	비동의

※ 표 8. 일본제품 불매

	동의(매우+동의)	비동의(비동의+전혀)	모름
전체 응답	70.7%	24.3%	5.0%
중도성향 계층 응답	71.3%	23.1%	5.6%
더불어민주당 입장	동의	자유한국당 입장	비공감
바른미래당 입장	신중	정의당 입장	동의

※ 표 9.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철저 수사

	동의(매우+동의)	비동의(비동의+전혀)	모름
전체 응답	62.7%	27.9%	9.4%
중도성향 계층 응답	64.1%	26.3%	9.6%
더불어민주당 입장	비동의	자유한국당 입장	동의
바른미래당 입장	동의	정의당 입장	동의

표1부터 표9까지 각종 현안과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중도성향 여론 별개 표시)와 원내 4개 정당(조사 기간 당시의 정당명)의 입장을 비교해보았다. 중도성향 계층의 의견은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 부분만 제외하면 전체 응답과 일치했으며 수치의 차이도 크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중도성향 계층의 의견은 전체 여론과 거의 다를 것이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 철저하게 실리주의와 정의에 입각한 관점을 보여주었다.

## (2) 실용주의 정당. 여론에 맞출 것인가? 이득에 맞출 것인가?

정당별로 보면, 여론 응답과 민주당의 입장이 일치한 사례는 9개 중 4건, 자유한국당은 3건, 바른미래당은 5건이었지만 그중에 2건은 다소 어중간한 입장도 있었다. 정의당은 가장 많은 6건이었다. 국민 여론에 맞는 실용주의적 선택은 제일 좌파적이고 진보적인 정의당이 가장 많았다. 하지만 정의당이 실용주의라고 할 수는 없다. 9가지 중 3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다른 관점을 보였다.

이처럼 국민 여론과 일치하지 않은 내용이 많음에도 기존 양당은 일정하고 안정적인 정당 지지율을 얻고 있다. 실용주의 행보를 하지 않아도, 극단적 대립과 이념 대결을 통해 기본 이상의 지지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표1~9와 관련한 조사가 진행되던 시기(2020년 1월 2~3주차)에 나타난 정당들의 지지율은 민주당 40%, 자유한국당 22%, 바른미래당 3%, 정의당 5%였다.

국민 여론과 가장 적게 일치했던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22%나 됐으며, 국민 여론과 일치한 것이 절반도 되지 못했던 민주당의 지지율은 무려 40%에 달했다. 국민 여론과 가장 많이 일치했던 정의당은 기존 거대 양당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지지율을 얻었다. 실용주의를 표방했던 바른미래당도 지지율이 저조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실용주의가 현재의 우리나라 정치에서 적절한 콘텐츠인지 혹은 이념적 좌표를 대신할 수 있는 아젠다인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한다. 다만, 바른미래당은 각종 현안에 대하여 국민 여론과 일치한 경우가 절반 수준에 그치는 등 실질적인 실용주의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부분이 이유로 작용했을 수도 있다.

※ 결론 : 이 점은 현재의 민생당도 다르지 않은 현실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무엇을 위한 실용주의인지 그 방향설정부터가 부재한 상태이다. 국민 여론과 함께하기 위한 실용주의인지, 정당의 생존을 위한 실용주의적 선택을 의미하는 것인지, 누구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실용주의 노선을 진지하게 논의한 적이 없으며 기초적인 연구도 없다. 당연히 실용주의 선택에 따른 결과 예측이나, 전략도 없다. 현재의 국민의당(안철수 대표)과 다를 것 없이 정치 노선을 대신하는 용도로 실용주의를 표방만 하고 있을 뿐이다.

현재 우리나라 주요 원내정당 중에 실용주의를 실천하고 있는 정당은 없다. 실용주의의 실천이 쉽지 않음도 확인됐다. 실용주의적 행보가 정당의 지지율을 올려주거나 선거에서 선전을 담보해준다는 근거나 연구조차 없는 현실이다. 한국 정치에서 실용주의를 표방하는 것은, 그저 탈이념의 개념에서 기존 양당 및 양극단과 차별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 정치의 현실이다. ㉠